

사 설

지방대, 지원정책 세워야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대전 세종·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울산 제주 등 전국 7개 권

김윤덕 의원 “정책청원서 토대로 지원책 내놔야”
전북대 제외 도내 주요 4년제 대학 정원 못 채워

역 대학들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같은 대학 지원정책을 정부에 청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를 거쳐 청원한 이들 대학의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 △지역 사립 대학 재정지원 확대, △지역국립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회생 불가에 몰린 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위한 청산 용자금 지원, 청산절차 법제화 등 크게 나눠 5가지다. 이들은 “지역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리면서 지역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2024년 지역대학 단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 각 당당이 정책으로 답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원을 소개한 국회 김윤덕 의원도 “지역대학

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수도권으로 풀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이번 정책청원서를 토대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대학의 이날 청원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보여준다. 올 정시모집만 보더라도 전북대를 제외한 도내 주요 4년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학의 이런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산학협력 같은 거창한 말 이전에 학생이 줄고 대학이 문을 닫으면 대학 소재 도시의 쇠락은 불 보듯 뻔하다. 대학을 살리는 것이 대학뿐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정책인 셈이다. 대학의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뿌리이기도 하다. 물론 대학이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 없는 정부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불법주정차를 막아라

전북에서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전

전북 안전신문고 신고 2배 증가
불법주정차 절반 이상으로 분석

북지역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모두 15만 6,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만 6,997건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접수하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은 학교·생활·교통·시설·산업·사회·해양 7개 분야를 신고할 수 있다. 크게 일반신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 코로나19, 생활불편 신고로 구분한다.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 지난해 전체 신고(15만 6,941건) 중 불법 주정차가 7만 8,897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신고 5만 8,692(37.4%), 생활불편 신고 1만 3,720건(8.7%), 코로나19 신고 5,632건(3.6%) 순이다. 지역별로는 전주(7만 3,316건)로 가장 많았고, 익산(2만 4,992건), 군산(2만 2,431건), 완주(6,547건), 정읍(5,962건) 등의 순이다. 전북도는 안전신문고 신고가 급증한 이유로 안전의식 확산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꼽았다. 또한 신고 항목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지난 2020년 7월에 개설됐다. 비슷한 시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항목이 추가됐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한 후 각 차단체에서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신문고란 주민들이 서로서로 단순히 보복으로 인해 신고하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닌,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생활을 이루기 위한 시민참여 행정제도다. 삼성교통연구사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2019년 5만9,453건에서 2020년 7만8,517건으로 약 32.1%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안전신문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다소 적은 것 같다. 향의민원 전화가 왔을 시 보통 자치단체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고정형이나 주행형은 알고 있지만 안전신문고라는 주민신고제를 알았을 시 주민들의 대부분 반응은 ‘알핏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사실을 통해 현재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는 증가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인원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 안전신고 목표관리제 운영과 처리 실태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안전신문고를 알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안전신문고의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한 까닭이다.



전북의 창

나눔의 천사들 우리 사회 빛이 되다

박 선 전 전주시의원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뜬 마음도 잠시, 코로나19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로 지역사회를 강타했다. 2년을 넘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나눔천사들의 따뜻한 나눔의 물결이 어둠속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세상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 거리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모금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였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사랑의열매 희망2022 나눔캠페인’은 목표액을 초과해 8,310백만원이 모금되어 나눔은 113.1도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요즘, 주민센터에도 나눔의 손길이 끊

“ 어려운 시국에도 나눔 천사들 또다른 천사 놓아 사랑 넘치는 사회로 변하는 모습에 미음 따뜻해져 **”**

이지 않고 있다. 노송동에는 얼굴없는 천사가 22번째 어김없이 다녀갔으며 개인부터 각종 단체까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줄이어 찾아와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팽

배해지면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의식은 어려울 때 더욱 강해진다. 어려울 때일수록 연대하고 함께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나눔 천사들의 마음은 또다른 천사들의 탄생도 돕고 있다. 받은 용돈을 조금씩 모은 저금통을 쪼개 기부하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 불어뻐를 팔아 저축한 돈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나눔천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도 나눔 천사들이 우리사회에 든든한 빛이 되어주고 또 다른 나눔 천사들의 탄생을 도와 주니 우리 지역사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 해본다.

은누리

남북 단절 상징 도라산역

“ 철도로 남북 양래 지속한다면 지속가능한 남북 협력 가능할 것 **”**

것에 대비해 도라산역에는 국내용과 국제용 두 곳의 승강장을 만들어 놨다. 남북한이 연결되면 철도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다. 철도로 남북이 왕래를 하면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다. 그래서 입국과 출국 대신 경계를 넘나든다는 의미로 ‘입경’과 ‘출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에서 핵심 합의 사항은 남북철도 도로 연결이었다. 현장 조사도 여러 차례 했고, 2018년 연말에 착공식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은 유엔안보리 제재를 극복하지 못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이 중단되면서 철도 연결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다. 남북 정상 합의 사항 중에는 철도 연결 이외에도 여러 교류 사업들이 있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정상화 합의도 있었다. 열차를 이용해서 북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직 꿈같은 일이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2년 새롭게 떠오른 태양처럼 새해에는 남북한 사이에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정복규(24원) 논설위원)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구독신청 063) 230-5712

전북의 중심을 잇는, 새전북신문 LED전광판광고!

Full Color LED 고화질의 광고영상으로 시각적 주목도가 높아 효율적인 브랜드의 이미지 구축이 가능합니다.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2-8 재중빌딩

전광판 광고문의 010-3654-5030 063)230-5714